현대삼호重, 35만㎡ 규모 용당산단 조성

1180억 들여 2016년 완공… 전남도, 일반산단 지정 승인키로

영암군 삼호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용당일반산업단지 지정이 승인됐다.

전남도는 26일 "삼호읍 용당리 일대 35만1000여㎡에 컨테이너선, LNG선 등 대형 선박용 블록제작을 위한 용당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단지의 시행자는 현대삼호중공업(주)이며, 사업비 11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 산단을 조성한 후 선박 블록용 공장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토지매입은 완료했다. 삼호읍에 본사를 둔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매출액 2조6000억원, 고용인원 11만7000명 등으로 세계 5위 선박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용당일반산업단지는 이달 말까지 산단 지정승인을 거쳐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2016년말 준공할 계획이다. 산단 조성이 마무리되면 대형 선박용 블록 제작 등 조선업과 선박 부품 제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 산단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1200억원, 고용 창출효과 1900명, 선박용 블록의 해상운반에 따른 원가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항만 기능이 떨어진 용당부두도 산단이 활성화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조선 관련 업종이 잇따라 입주하게 되면 원가를 줄일 수 있어 침체된 지역 조선업에도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현재 여수·광양·대불·빛그린 등 국가산단 5곳, 오천·순천·문평 등 일반산단 29곳 등 총 34곳 243㎢가 지정돼 준공됐거나 조성 중이다.

이는 전국 총 501곳 1277㎢의 19%를 차지하는 규모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안갯벌 청소년 환경생태 교육장 육성

무안군이 국내 최초 습지보호지역인 무안갯벌을 환경생태교육의 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도내 36개 학교 1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갯벌과 문화 등 생태체험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갯벌전시관인 무안생태갯벌센터를 전남지역 갯벌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갯벌센터에 어린이와 학생 등 환경생태여행과 수학여행 등을 연계해 다양한 청소년 환경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는 갯벌 저서생물(해저 서식생물), 갯벌과 문화, 갯벌과 예절, 놀이로 배우는 갯벌, 갯벌과 놀이 등이 마련됐다.

환경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무안갯벌의 생태, 환경, 문화적 특성을 보다 쉽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천혜의 무안생태갯벌이 청소년에게 해양환경 생태교육의 중심이자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달빛아래 횃불로 낙지 잡고 오솔길 산책하고

여수 '주말 섬마을 사람들' 내달 시행

6개월간 5개섬 대상 1박2일 체험투어

여수시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말에 만나는 섬마을 사람들'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개도, 금오도, 여자도, 손죽도, 초도 등 5개 섬을 대상으로 각 섬의 특징을 살린 1박 2일 체험 여행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금오도 비렁길 에코 트레킹, 달빛아래 횃불로 낙지 잡기 ▲개도 갯가길 걷기, 전설해풍 산행 ▲여자도 섬 발전소와 분교 견학, 이장님과 함께 오솔길 산책, 대나무 낚시 체험 ▲손죽도 지지미재 화전놀이 재현, 이대원 장군 역사 탐방 ▲초도 갱본 나들이와 갯것 체험, 해녀가 들려주는 바다 속 이야기 등 각 섬의 특성을 담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배움과 감동이 있는 감성 여행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모든 프로그램을 마을회와 부녀회, 노인회 등 섬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방문객들과 함께하는 형태로 준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김병호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현지 5개 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각 섬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문화와 체험거리 등 감성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데 주력했다"면서 "행사 이후에도 상설화된 여행상품으로 발전시켜 여수 섬 관광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주말에 만나는 섬마을 사람들'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금오도, 거문도, 하화도, 사도, 개도 등 여수 주요 섬을 대상으로 1200여명이 참여했다.

섬별 일정 및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나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홈페이지(yosuicc.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지난해 금오도를 찾은 '섬마을 사람들' 여행단.

우리밀 음식발굴 경연대회 지난 24일 구례 우리밀 농촌체험교육관에서 열린 '제1회 우리밀 음식발굴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출품작들을 정성스럽게 전시하고 있다. 구례군 우리밀명품화사업단은 입상작을 다음달 1일 광의면 온당리 우리밀 축제장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구례군 제공〉

전남도, 올해의 남도 전통술 14종 선정

금세기막걸리 등 뽑혀

전남도는 올해의 남도 전통술로 고흥 죽암F&C의 '금세기막걸리' 등 모두 14종을 선정했다.

전남도내 20개 업체가 탁주와 청주, 과실주 등 7개 부문에 출품한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생막걸리 부문 대상은 고흥 ㈜죽암F&C의 금세기막걸리, 최우수상은 장흥 안양주조장의 안양동동주, 우수상은 해남 옥천주조장의 옥천막걸리, 장려상은 순천 ㈜팔마탁주의 친구사이와 영광 대마주조의 보리향탁주가 차지했다.

청주와 약주 부문은 함평 자희자양의 자희향 국화주(최우수상)와 강진 병영주조장 청세주(우수상)가 뽑혔다.

일반증류주 부문은 담양 추성고을의 타미앙스(최우수상)와 진도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의 38도 진도홍주(우수상)가 선정됐다.

선정된 전통주는 오는 9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 남도 대표 브랜드로 출품된다. 또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과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도 전통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유도, 품질 고급화로 전통주가 세계 명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 전국 최초 에코 라벨 상표 개발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에코 라벨 상표를 개발했다.

1004개의 섬과 우리나라 최대의 갯벌을 보유한 군이 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와 홍보, 소득 증대를 위해서다.

군은 앞으로 에코 라벨을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표 특허 출원을 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독일 뢴 지역 특산물에 에코 라벨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결과, 다른 지역 특산물보다 다섯 배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며 "친환경 특산물인 신안 천일염과 섬초 등에 에코 라벨을 부착해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전남 중부권

장성읍 시가지 전봇대 사라진다

삼가동 5거리~역전 교차로 2㎞ 전선 지중화

장성읍의 도시미관을 해치던 전봇대가 올해 가을이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24일 한국전력 광주전남개발지사와 장성읍 시가지 전선지중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찰을 통해 시공자와 감리자가 결정됨에 따라 전선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성읍 시가지 내 전신주를 없애고 어지럽게 얽혀있는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이번 사업은 삼가동 5거리부터 교통대(구 매일시장입구)→쌈지공원→역전 교차로에 이르는 2㎞ 구간으로 6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이 구간에 설치된 전신주 102개가 철거됨에 따른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거리의 장애물이 없어짐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신주가 매설되고 보도블럭 및 가로등이 새로 설치되면 도시미관이 좋아져 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로 도시 경쟁력이 크게 향상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장성군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구간을 교통통제가 가능한 8개 구간으로 구분하는 등 신속한 공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장성읍 시가지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장성읍 시가지 업체의 간판을 도시미관을 고려한 친환경 디자인으로 개선, 상가 이미지를 살리면서 도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나주 초중생 어학연수 인기 높다

미국 연수 경쟁률 6대1

나주시가 3년 연속 시행 중인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학생 선발 경쟁률이 최근 6대 1을 보이며 호응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올 여름방학 기간, 미국 웨네치시 밸리대학에서 이뤄지는 어학연수에 보낼 지역 초·중학교 성적 우수학생 30명에 대한 선발을 최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동신대에서 이뤄진 연수자 선발 필기시험에서는 기존 성적 우수학생 6명을 제외한 24명을 선발하는데 134명이 응시해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사진〉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향상 등을 통해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첫 시행된 이 제도는 올 여름방학 연수생까지 포함할 경우 110여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나주시는 시행 첫 해 성적 우수학생 20명을 선발해 연수를 보냈으나 학부모와 참가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 작년부터 30명으로 인원을 확대했다.

미국 현지에서 4주간 이뤄지는 어학연수는 오전에는 어학교육에 집중하고 오후에는 스포츠와 음악, 문화활동 등을 통해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짜여진 점이 특징이다.

이와 별도로 나주시는 올해도 7월 29일~8월16일까지 초·중학생 19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외국어고와 동신대학교에서 각각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열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화순 만연천에 모기 유충 퇴치 미꾸라지 방사

화순군은 주택가가 밀집된 만연천에서 모기 퇴치를 위해 미꾸라지 2만 마리(200㎏)를 방사했다고 26일 밝혔다.

만연천은 화순읍을 관통하는 도심하천으로 모기발생에 취약한 여건을 노출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극심한 모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미꾸라지는 하루 평균 모기 유충 1100여 개를 포식하고 다른 천적보다 환경 적응력이 강해 모기유충 퇴치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순군은 미꾸자리 서식 정도를 감안해 1만3000여 마리를 추가 방사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미꾸라지 방사로 만연천 인근 주택가의 모기 서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효과를 분석해 추가 방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마늘 수확 "바쁘다 바빠" 마늘 주산지인 강진군 작천면 들판에서 26일 농부들이 수확한 마늘을 비가 오기 전에 출하하려고 자루에 담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나주미래산단 재협약 동의안 시의회 통과

나주미래일반산단에 대한 승인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단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164회 임시회에서 '나주미래일반산업단의무부담 동의안'과 '투자협약 승인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미래산단 조성사업 시행자 선정 동의안은 참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5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 정찬걸의원과 문성기의원, 통합진보당 임연화의원 등 3명은 동의안 반대토론에서 "검찰에 기소된 D건설이 2차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부당하고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김종운의장에게 제출했다.

시는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나주산단개발컨소시엄(대표자 KB투자증권)과 정식계약을 체결한 뒤, 산단조성과 분양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지역사회의 논란과 어려운 과정 속에서 결단을 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고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찬걸의원 등 3명은 결코 의원직 사퇴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의원 수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10월 준공

정남진장흥표고(주)

표고 주산지인 장흥의 '정남진장흥표고주식회사'가 집하장과 가공시설 등을 갖춘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한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0억5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표고버섯 중심의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오는 10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장흥군 부산면 내안리 장흥표고주식회사 신축부지 안에 2679㎡(810평) 규모로 집하·선별장, 저온창고, 예냉 및 가공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량 선별과 가공품 개발, 유통체계 개선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